

2018 간호계 주요 뉴스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Nursing Now Korea)가 출범했다. 출범식은 2018년 11월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2018 간호정책 선포식'에 이어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왼쪽 가슴에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파란 스티커를 붙이고, 손에는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로고 및 '간호법 제정!!' 글귀가 새겨진 피켓을 들었다.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신경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는 보편적 건강보장에서의 간호사 핵심역할 수행, 간호사의 보건요령적 의사결정 참여,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 인정 및 지위 향상이라는 미션 아래 세부 활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적"이라고 밝혔다.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메시지가 영상으로 상영됐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들과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남녀 대표가 무대 위에 올랐다.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로고가 새겨진 피켓을 펼쳐 든 가운데 신경림 위원장이 출범을 선언했다. 이어 참석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넬싱 나우' 및 '간호법 제정'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이때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로고 및 '간호법 제정!!' 글귀가 새겨진 피켓을 펼쳐들어 장관을 연출했다. 출범식에 이어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도 특별강연을 했다.



6·13 지방선거 간호사 14명 당선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간호사 14명이 당선됐다. 광역의회 의원 3명(지역구)과 기초의원 의원 11명(지역구 6명, 비례대표 5명)이 당선된 영예를 안았다. 간호사 당선인을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0명(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8명), 자유한국당 3명(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2명), 정의당 1명(기초의원) 등이다.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다. 간호사 당선인들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생 현장을 발로 뛰고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챙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간호사로서, 여성으로서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고 반듯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특히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한 당선인들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활정치 펼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올바른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간호사 31명, 간호대학 졸업자 및 간호대학생 2명 등 총 33명이 출마했으며, 선거결과 간호사 14명과 간호대학 졸업자 1명이 당선됐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및 2016년 재보궐선거에서는 간호사 34명이 출마해 22명이 당선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와 시도간호사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출마한 간호사들을 찾아다니며 격려하고 응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당선인들을 위한 축하연을 6월 18일 개최했다. 당선인들과 대한간호협회 임원,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5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

제5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가 '간호에서의 새로운 가치 탐구'(Creating New Values in Nursing) 주제로 2018년 9월 16~18일 일본 도쿄 유엔대학에서 열렸다. 이번 간호학술대회는 일본간호협회가 주최했다. 한국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해 63명의 간호사들이 참가했으며, 3개국의 간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중·일 간호학술대회는 3개국 이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개최식에 이어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일본간호협회 후쿠이 토시코 회장, 중국간호협회 우 신주안 회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특별세션이 간호실무지원, 간호교육, 노인간호, 조직관리 및 리더십 등 4개 주제로 열렸다. 또한 3개국의 간호현황과 최신 간호흐름을 이해하고 간호중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한국 참가자들은 "3개국 간호사들이 학문적 교류뿐 아니라 문화적 교류까지 이룬 화합의 장"이었다면서 "각국의 간호현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간호의 본질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3개 팀으로 나뉘어 와세다대 첨단 생명과학센터, 도쿄 소방청 훈조 방재관, 일본간호협회 등을 견학했다. 일본간호협회가 개최한 환영만찬에서는 3개국 간호사들이 함께 우정을 나누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20년 제6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는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한국에서 개최된다.

대한간호협회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위한 서명운동을 적극 펼치면서 두 간호사의 간호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간호협회는 올해 4월 5일 전남 고흥군 및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과 함께 두 간호사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를 통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고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7개 언어로 서명 사이트(mm.kna.or.kr)를 운영하고 있다.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서명운동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넬싱 나우' 글로벌 캠페인

Nursing Now(이제는 간호다)는 국제간호협회(ICN)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며, 버데트간호재단(Burdett Trust for Nursing)에서 후원한다. 2018년 2월 27일 영국 런던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캠페인 출범식이 열렸으며, 한국을 비롯해 각 국가별 위원회를 설립 중이다. Nursing Now 캠페인은 간호사의 역할 강화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할 수 없으며, 지금이 바로 간호사를 병원과 지역사회에 충분히 배치하고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투자하고 지원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는 길, 그 해답은 바로 간호사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의 17개 목표 중 하나인 '3. 건강과 웰빙'의 세부실천목표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자립능력과 관계 없이 필수적인 양질의 보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Nursing Now 캠페인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는 데 간호사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 △보건요령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간호사가 참여해 영향력을 발휘한다.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고, 간호사의 지위를 향상시킨다. 세부 활동목표는 △간호사 적정인력 배치 및 근무환경 개선 △간호사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에 정부 투자와 지원 확대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한 전문직 자율규제 강화 △보건요령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간호사 참여 확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담당부서 설치 및 Chief Nursing Officer 확보 △간호실무 혁신 및 근거기반간호 확산 등이다.

간호사 고충상담 '넬스톡' 운영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전용 열린콜센터인 '넬스톡'(NurseTalk, 상담전화 1588-6282)을 통해 통합 안내 및 상담 서비스를 올해 9월 3일부터 시작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고충상담, 면허신고상담, 일반상담 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열린콜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열린콜센터 '넬스톡'에 전화를 한 후 상담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면 상담직원이 연결돼 안내해준다. 상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다. 회원고충상담에서는 간호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고충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 및 분쟁, 간호업무 관련 법률문제, 임금·근로조건·모성보호 등 노무에 관한 사항 등을 상담해준다. 보다 전문적인 상

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노무 무료상담'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면허신고상담에서는 간호사 면허신고 절차 및 방법,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해준다. 일반상담에서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보수교육 결제요류 및 동영상 문제에 대해 상담해준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 회원복지, 간호사신문 구독 등에 관해 상담해준다. 대한간호협회는 열린콜센터 운영에 앞서 올해 7월 명칭 공모전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했다. 공모전을 통해 간호사 전용 열린콜센터 명칭을 '넬스톡'으로 확정했다.

환자경험 평가결과 '간호서비스' 만족도 가장 높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경험을 평가한 결과 '간호서비스' 영역 4개 문항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88.8점으로 6개 평가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영역 전체 21개 문항 중 점수가 높은 1, 2, 3위를 모두 '간호서비스'가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결과를 2018년 8월 10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환자경험 평가점수는 전체 평균 83.9점으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 84.4점, 종합병원 83.6점이었다. 각 영역별 평가점수를 보면 △간호사 서비스 88.8점, 의사 서비스 82.3점 △투약 및 치료과정 82.3점 △병원환경 84.1점 △환자관리보장 82.8점 △전반적 평가 83.2점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간호사 서비스 중 환자에 대한 존중/예의(1위), 경청(2위), 환자의 도움 요구 관련 처리 노력(3위)이 89점 내외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점수가 낮은 항목은 불만을 말하기 쉬웠는지(21위),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20위), 의사의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19위)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국시 대비 '온라인 모의고사'

대한간호협회는 2019년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온라인 모의고사' 서비스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했다. 온라인 모의고사는 대한간호협회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간호학 전문도서를 'RNbook' 홈페이지(www.RNbook.or.kr)에서 구매해 풀이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2019년 1월 31일까지이다. 온라인 모의고사는 3차까지 볼 수 있다. 온라인 모의고사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최신 경향을 반영한 적중률 높은 문제로 구성됐다. 간호대학 교수 및 실무전문가들의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수준 높은 문제들을 엄선했다. 특히 국가시험과 동일한 과목, 문제

'간호사 서비스' 영역은 평균 88.8점으로 6개 평가영역 중 점수가 가장 높았다. 병원 종합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89.5점, 종합병원 88.2점이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시 90.2점, 경상도 88.6점, 전라도 88.5점, 경기도 88.8점, 제주도 88.1점, 강원도 87.1점, 충청도 86.7점이었다. '간호사 서비스' 영역에서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의사소통을 평가한 4개 문항 모두 점수가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환자경험 평가 전체 21개 문항 중 1, 2, 3위를 모두 간호사 서비스 영역이 차지했다. 각 문항별로 보면 △존중/예의= 89.9점(1위) △경청= 89.3점(2위) △병원 생활 설명= 87.3점(7위) △도움 요구 관련 처리 노력= 88.9점(3위)으로 나타났다. 설문지 문항 원문은 △담당간호사는 귀하의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 △담당간호사는 귀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습니까? △담당간호사는 병원생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습니까? △담당간호사는 귀하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귀하의 요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까? 등이다. 4점 척도로 답변하도록 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서명운동

"모든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소록도 그곳에서 우리 참 행복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시상하는 '제6회 간호대상' 수상자로 일생을 소록도에 헌신 봉사한 마리안느 스토거(Marianne Stöger)와 마가렛 피사렉(Margaritha Pissarek) 간호사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1일 열린 '2018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진행됐다. 전반기간호사회 장영숙 회장이 대리 수상했으며, 상패는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에게 전달됐다. 마리안느 스토거(84세, 한국어름 고지선)와 마가렛 피사렉(83세, 백수선)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간호학교를 졸업했다. 구호단체 다미안재단을 통해 마리안느는 1962년, 마가렛은 1966년 소록도에 간호사로 파견됐다. 공식적인 파견기간이 끝난 뒤에도 소록도에 남아 한센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며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월급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일했다. 2005년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대한간호협회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위한 서명운동을 적극 펼치면서 두 간호사의 간호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간호협회는 올해 4월 5일 전남 고흥군 및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과 함께 두 간호사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를 통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고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7개 언어로 서명 사이트(mm.kna.or.kr)를 운영하고 있다.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서명운동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교육

대한간호협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간호협회는 2018년도 보건복지부 위탁 '치매전문교육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비를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치매안심센터 간호사를 위한 교육은 '기본과정' 및 '치매조기검진과정' 두 가지로 운영했다. '기본과정' 교육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7월 6일, 7월 21일, 10월 5일 3차례 실시했다. '치매조기검진과정' 교육은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7월 7일, 7월 14일, 10월 12일, 10월 19일, 10월 20일 5차례 실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치매전담간호사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홍보에 힘썼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매 관리에 나서면서 조기검진과 맞춤형 사례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치매전담간호사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고 치매간호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은 치매안심센터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됐다.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근무한다.